

월요광장

새로운 가족의 탄생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해외에 있는 친구로부터 반가운 안부 문자를 받았다. 한국과 관련한 보도를 보고 내 생각이 났다며 링크도 함께 보내주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관련 보도는 남북한 관계나 정치적 정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근래 한국의 경제적 우위와 K-문화의 소프트 파워 덕분에 우리 사회의 동향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보도가 늘어났고 그들 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이 한층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보도 내용은 기대와 달리 섬뜩했다. 독일의 뉴스채널인 n-tv는 한국의 심각한 인구 문제 현황에 대해 과거 한국이 시행해 온 인구 제한 정책에서부터 최근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0.78이라는 저출산율로 막다른 인구 절벽에 서 있는 현재의 상황과 집값,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진출 등 그 결정적 원인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 유례없이 빠른 인구 소멸 현상으로 세계 외신들이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도 저출산과 1인 가구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초저출산율은 지금껏 보지 못

했으며 근본적으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의식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30대인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 근황을 묻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결혼을 꿈꾸던 그가 주변 친구들의 경험담을 통해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1인 가구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비혼을 선호하는 사람과 만나 동등한 관계로 함께 살기 바라고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 자신에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현실적으로 법적 혼인의 성사 없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제도적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무시나 차별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유럽에서는 비혼 상태에서 혼외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가정이 많다. 한때 심각한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던 프랑스는 이제 인구 감소 걱정을 내려 놓았다. 과거 영권 국가 시대부터 가족을 지원하던 제도가 있었던 프랑스는 그 오랜 전통으로 가족을 국가 정책의 핵심에 두어 왔다. 시대 변화에 맞춰 의식의 개선과 저출산율을 극복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지원하는데 힘써온 결과, 출산율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성공한 대표적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외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양한 가족 구성을 장려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적정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결혼은 가족을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든든한 제도로 인식되어왔다. 오랜 관습이나 제도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해 왔듯이 이제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해 이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무조건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가 여성만의 몫이라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비혼 출산과 이혼 후 자녀 양육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시대적 염치가 없는 일이다.

결혼과 출산은 개개인의 선택이기에 기성세대는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 강요하기보다는 존중하고 그들이 선택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출산 또는 혼외 출산을 원하는데도 경제·사회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그들을 돕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소멸과 인구의 감소를 막기에는 미약하더라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결국 가족의 의미 확장을 통해 출생율을 높이고 가족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인구 문제만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가족의 탄생이야말로 개인의 삶을 건강히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자 나아가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지속가능하게 유지시켜주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그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성공과 민주화를 이뤄낸 저력이 있다. 이 모두가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연대 의식을 역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전격적인 의식의 변화와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수필의 향기

기다릴 용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기다리는 일은 일상이다. 우리 삶의 99%는 기다리는 일일 게다.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밥이 익기를 기다리고, 벼가 여물기를 기다리고, 아이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게 삶이다. 그 기다리는 동사가 멈춘 순간, 명사 기다림은 망부석이 된다.

오늘도 중하지만 내일모레가 있어 오늘이 의미가 있다. 답장을 기다리며 편지를 쓰고, 결과를 기다리며 투표하고, 합격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도전한다. 낙화 앞에서 울지 않는 까닭은 내년 봄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폐창고 뒤로 오래된 나무가 하나 솟아 있다. 우뚝 솟은 모습이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는 나무 같다. 예전 학교나 서당 주변에 심은 회화나무로 개교 당시 교정 곳곳에 심었으니 수령은 넉넉히 환갑은 넘었을 거다. 그런데 실용성에 밀려 죄다 베어지고, 한갓진 것이어서 용케 이 녀석만 구차하게 살아

남았다.

학교는 늘 생동감이 넘친다. 만사가 수시로 변하고 바뀐다. 아이들은 시시로 크고 때때로 성숙해진다. 자리 바뀌는 데만 신경을 쓰는 사이, 해마다 바뀌는 게시물처럼 학생도 교사도 바뀌기 바쁘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 조금만 늦었다면 그 회화나무는 이 세상 나무가 아닐 뻔했다. 다른 것으로 쓰러지지 못하도록 밧줄로 고정하고 막 톱을 가져다 대기 작정이었다. 서둘러 막아섰다.

“죽은 나무를 방치했다가 바람에 잘못 쓰러지거나라도 하면 지나는 아이들 다치지 않겠어요.”

대답은 지극히 옳고 마땅했다. 하기가 났모레가 한 여름 5월인데도 이파리 하나 내밀지 않은 녀석을 누가 살았다고 하겠는가.

딱 10년 전에도 그랬다. 그때 그 교장 선생님도 같은 이유로 똑같이 톱을 가지고 나오셨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도 퇴직하고 그다음 교장 선생님도 퇴직했다. 몇 해 전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나무도 저마다 특성이 다르다. 특히 회화나무는 더딘 나무다. 봄 끝물에서야 겨우 싹을 내민다. 화려하지 않으면서 진득하며 참을성 많은 늦게 핀 나무다. 그래서 ‘학자 나무’라고 하는 모양이다.

도곡은천 가는 길에는 벚꽃이 만화방장이다. 매주 그 길목을 지날 때마다 눈을 주는 나무가 있다. 온통 만

발했는데 시치미를 떼고 있는 두 그루, 그 두 녀석은 특이하게 다른 꽃들이 완전히 소멸한 후어야 새초름 매초롬하게 눈을 뚫다. 재작년, 작년에도 그랬다. 그래서 더 황홀했다. 같은 토질, 같은 바람에도 두 녀석만은 서로 연약이라도 한 듯 회화나무처럼 한껏 거드름을 피우다가 꽃을 피웠다. 어느 날 그 그늘에 앉아 늦봄을 만끽하며 물었다. 왜 너흰 이리 게으르냐고. 묵묵부답 두 녀석은 향기만 뽐낼 뿐이었다.

교정의 회화나무는 철 따라 풍경이 경이롭다. 그 나무 위로 햇살과 석양, 천둥과 태풍도 걸린다. 눈이 오면 고고한 학이 무더기 앉는다. 안개나 비바람 속에서는 신령한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남루한 공간일지라도 그가 준 시심이나 운치는 이보다 더한 게 없다.

근대 녀석은 누굴 기다리느라 저리 더디게 잎을 피울까. 더 강렬한 자국, 그도 아니면 녀석에게도 은밀히 감춰둔 애인이라도 있는 걸까. 혹여 지난여름 베어진 나무의 향기를 애타게 기다리진 않을까.

나무를 통해 또 물리(物理)가 도리(道理)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배운다. 오래 기다린 만큼 기쁨도 크다. 기다리는 일은 인내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 회화 나무의 끈질긴 자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진득한 기다림 덕분이다.

근대 녀석에게 저쪽 회화나무의 부재를 알려주면 정말 정말 녀석도 망부석이 될까.

기고

누가 미래의 노인을 돌보게 될까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걸 두고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보건의료 단체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간호법이 생기면 모든 보건의료 직종마다 각각 독자 법을 요구해 업무 다듬어 커질 것이라고 이들 단체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세계 각국이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별도의 간호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처사다. 우리 주변 국가인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9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간호법을 의사법, 치과의사법 등과 함께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각종 의료기사들은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약사와 한약사

는 ‘약사법’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현행 의료법의 전신인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1951년 만 해도 의사(5082명)가 전체 의료인의 절반에 육박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간호사 50만 명, 의사 14만 명으로 전체 의료인 가운데 간호사가 훨씬 많다. 그만큼 간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현행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지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간호사들이 의료기관만 아니라 학교,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산업체, 교정기관 등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간호사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이처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간호 현장은 답답하다. 병원에 가면 “입사한 지 얼마 안된 간호사들만 왜 이리 많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밤샘 근무라는 고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입사 7년만인 서른 살 전후로 퇴직하는 탓이다. 3교대 밤샘 근무에 지쳐 임금이 적더라도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 일쑤다. 병원에 숙련된 간호사가 많아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간호사 확보를 위한 법령을 만들고,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가 돌봄 환자 비율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는 안정적 간호사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해 노인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 뒤면 1000만 명을 돌파한다. 치매 환자도 100만 명을 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 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질병 치료보다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하고, 병원 퇴원 뒤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초고령 사회 문턱에서 ‘누가 미래의 노인을 돌보지?’라는 의문에 대답하려면 지금 당장 간호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간호법은 우수 간호 인력을 양성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보건 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社說

해갈 앞당긴 호우...농작물 피해 신속 복구를

장기 가뭄에 허덕이던 광주·전남 지역 해갈을 앞당긴 호우...농작물 피해 신속 복구를

장기 가뭄에 허덕이던 광주·전남 지역에 최근 몇일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식수원의 저수율이 급등했다. 상시 제한급수가 이어지던 완도 등 섬 지역도 저수지에 물이 차면서 이번 폭우가 가뭄 지역에는 효자가 됐다.

지난 3일부터 몇일간 광주·전남 지역에는 장흥 관산 344mm를 최고로 완도 보길도 291.5mm, 광주 광산 174mm 등의 호우가 쏟아졌다. 덕분에 10~20%대를 오가던 광주시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도 어제 오전 11시 기준 각각 35.1%, 30.1%를 기록 중이다. 동북댐은 이번 호우로 저수량이 3204만㎥으로 증가했다. 통상 상수도 일일 취수량이 약 15만 1천ℓ를 고려하면 200여 일 이상 쓸 물을 확보한 셈이다.

집중 호우 덕분에 광주·전남 지역은 반세기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서 벗어났다. 광주 지역도 일단 올해는 제한 급수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부터 제한 급수가 이어진 완도 섬 지역도 열 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25%에서 63%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네 개 섬 지역에 대한 제한 급수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이번 호우는 해갈을 앞당긴 반가운 비였지만, 지역 곳곳에 생채기를 냈다. 광주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과 침수,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전남에서는 농작물과 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범철 수확을 앞둔 밭작물 554ha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해 드러눕는 도복 피해가 발생했고, 모내기를 마친 벼 174ha도 침수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제한 급수 위기는 호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절수운동 참여로 넘겼지만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물 절약 생활화와 항구적인 가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복구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식민사관 ‘전라도 천년사’ 철저히 검증·수정해야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제 식민사관에 기초한 표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엇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천년사”는 ‘임야일본부’ 설의 근거가 되는 ‘일본서기’의 기술을 빌려오는 등 식민사관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야마토(大和) 왜(倭)가 전라도에 있었다는 일본 사학자의 주장 등을 받아들여 왜인들이 전라도를 지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의 지명 중 전북 남원을 ‘기문’으로, 해남을 ‘침미다레’로 기술하는 등 일본서기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의원들은 이처럼 왜곡 기술된 부분에 대한 해명과 충분한 검토 시간 부여, 타당한 절차를 통한 수정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의원들도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

편찬위원회가 단 2주간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람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전라도 천년사’는 정도(定道) 천년을 맞아 전라도 5000년 역사를 올곧게 재정립하기 위해 2018년부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세 개 시도가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편찬한 34권, 2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서이다. 지난해 말 발간 봉정식을 앞두고 ‘전라도 오천년사 비료잡기 전라도민연대’가 식민사관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발간이 잠정 연기됐다.

호남은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에 항일 의병운동을 주도했던 충절의 고장이다. 한때 지자체가 발간한 역사서에 일본서기에 뿌리를 둔 식민사관적 표현들이 담긴 단 순국선열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편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기된 문제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출간을 중단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無等鼓

현재 남아 있는 동학 농민 운동 문헌 대부분은 토벌에 나섰던 관군과 일본군이 작성했다. 동학 농민군이 쓴 편지는 그래서 더 각별하다. 한문과 한글로 쓴 편지 두 점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21년 지정된 ‘동학 농민군 편지’는 유광화(劉光華, 1858~1894) 선생이 1894년 11월께 동생 광팔(光八)에게 썼다. 동학 농민군이 전투 과정에서 한문으로 쓴 유일한 편지다. 양반가 자제였던 유 선생은 동학 농민군 지도부로 활약하며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출옥을 위해 뇌물로 사용할 300냥과 의복 등을 보내 달라’고 했다. 목숨을 담보로 거래하는 부패상을 엿보게 한다. 한 선생 가족이 300냥을 마련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는 이듬해 4월 출소해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한다. 1994년 2월 16일자 광주일보(‘東學자료 일간발굴 농민革命史 재조명 轉機’)에 소개된 한 선생의 편지에는 19세기 말 우리 지역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입신이(없으니), 꼬피(급히), 직시(즉시), 고상(고성) 등이

동학 농민군 편지

회소 전투 등에 참여했

그는 편지에서 “나라를 침략한 왜군(일본군)과 싸우고 있으니 군자금을 급히 보내 달라”며 결의를 다졌다.

2022년 문화재가 된 또 하나의 편지는 동학농민군이 남긴 유일한 한글본이다. 회소 도암면 출신인 한달문(韓達文, 1859~1895) 선생은 ‘나주 동창 유기모 시골집’(신북면 월평리)에서 격전을 벌이다 토벌대에 붙잡혔다. 접주급(동학 지방 조직의 책임자)으로 알려진 그는 1894년 12월 나주 감옥에서 어머니(쌍동댁·雙同宅)에게 편지를 보냈다.

최근 동학 혁명군 편지를 포함한 진압군 공문서와 보고서, 증인 등과 싸우고 있으니 군자금을 급히 보내 달라”며 결의를 다졌다.

185건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은 4·19 혁명 기록물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회의 최종 등재 승인을 앞두고 있다. 오는 11일은 제129주년 동학 농민 혁명 기념일이다. 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첫 승리를 거둔 항도현 전승일이다. 뜻깊은 동학 혁명 기념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